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Bids in for mega-trains at Qatar's North Field Expansion scheme

이번주 3개의 글로벌 컨소시엄이 카타르의 North Field Expansion(NFE) 프로젝트의 액화설비 건조 공사에 입찰을 했다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한 컨소시엄은 일본의 Chiyoda - 영국의 TechnipFMC, 한국의 현대중공업 - 일본의 JGC, 이탈리아의 Saipem - 미국의 McDermott - 대만의 CTCI 등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SBO, 풍력발전선 2척 발주 계획

덴마크 Swire Blue Ocean(SBO)이 풍력발전터빈설치선(WTIV) 1+1척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SBO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풍력 발전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신조선을 발주하는 한편 기존 선대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선박뉴스)

## 포스코, LNG선 1척 발주 시동

포스코 산하 종합무역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5년 인도 조건으로 LNG선 1척을 발주하기 위해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견적을 요청했다고 보도됨. 최근 국내 조선업체와 선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LNG선 발주를 기다리는 가운데 나온 뉴스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세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하반기 해운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됨. 9월 4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4.6% 상승한 1,320.8p를 기록했는데 1,3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약 8년만이라고 보도됨. COVID-19 이후 물동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하나의 이유로 분석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차륜형대공포 양산사업 560억 규모 계약

한화시스템은 17일 계열사인 한화디펜스와 '30mm 차륜형대공포 양산' 계약을 맺었다고 밝힘. 계약금액은 561억 1,723만원으로 한화시스템의 2019년 연결기준 매출의 3.6%에 이른다고 보도됨. 계약기간은 1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라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 파나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파나시아는 17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와 황산화물저감장치(Scrubber)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소추출기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힘. 약 2년 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한 수소추출기 사업은 올해 대전시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제품을 시험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수소추출기 사업 매출이 2,500억 이상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힘. (선박뉴스)